

【연구논문】

20세기 이전 미국의 군사 전통: 반(反) 군사 전통의 형성과 전개

설인효

(연세대)

I. 서론

오늘날 미국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군사강대국이다.¹⁾ 그러나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대규모 정규군의 건설과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군사동원 체제의 수립을 거부하는 강력한 정치, 사회, 문화, 군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반 군사 전통(the Anti-Military Tradition)’²⁾은 독립 이

1)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ion of Strategic Studies)는 ‘Military Balance 2011’에서 2011년 국제 군사력 균형 변화의 특징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국방비 감축과 아시아를 비롯한 비서방 국가들의 국방비 증대를 지적하고 있다.

(2012.1.5: <http://www.iiss.org/publications/military-balance/the-military-balance-2011/press-statement/>).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전세계 국방비의 4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위인 중국의 6배에 이른다.

(2012.1.5: http://armscontrolcenter.org/policy/securityspending/article/fy09_dod_request_global/).

2) ‘반 군사 전통(Anti Military Tradition)’은 군국주의(militarism)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Anti-militarism’과도 다르며 미주 대륙 내에서의 팽창이나 인디언에 대한 공격에서 나타나는 호전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도 아니다. 이는 주로 호전성의 수단인 군대의 구성방식과 동원체제의 수립에 관한 미국민의 특수한 정서를 일컫는 것으로 소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의 군사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반 군사 전통’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제II장 1절을 참고할 것.

전 식민시기부터 형성되어 20세기 초까지 100여 년 이상 지속되고 강화되어 온 것이다.

유럽을 중심 한 근대국가의 건설과정이 근대적 군사조직 및 동원체제의 수립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며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예는 근대국가 형성의 일반적 경우와 구분되는 특수 사례를 구성하며, 이것이 총체적으로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관념 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의 미국사와 미국 군사사 연구에서 20세기 이전 미국 예외주의의 군사적 측면이나, 군사전통의 구체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군사력의 본질과 군사체제의 근본적 속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정치는 지속적으로 미군의 주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는 여전히 미국의 최신 국방정책이나 군사적 현안에 대한 근시안적 분석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국 이후 미 육군의 ‘뿌리’에 해당하는 20세기 이전 미국 군사 전통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세기 후반의 기록적인 성장과 20세기 초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미국의 군사 전통은 일대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를 통해 미국은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으며 미국의 군사체제 역시 ‘제국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식민시기 이후 2세기 이상 지속된 군사적 전통은 전통의 지속적인 생명력으로 인해, 또 그러한 군사 전통의 유지와 지속을 가능케 했던 여러 조건들의 지속으로 인해 여전히 미국 국방정책과 군사체제에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수행해 온 패권적 역할 속에서 이러한 전통의

3)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1996).

4) 이 시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를 이루며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영향력은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잠재적인 형태로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정치가 고립주의적 성향을 띄거나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조건이 형성될 때, 전통의 생명력이 회복될 수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20세기 이전 미국의 군사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미군의 동원과 파병, 군사력 전개 과정에 작용하는 정치적 역학과 그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내정치의 향방을 예측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먼저 예비적 고찰을 통해 20세기 이전 미국의 군사 전통인 ‘반 군사 전통’의 개념과 의미를 살피고 이러한 ‘반 군사 전통’이 형성되고 발전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이어서 반 군사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세기 이전의 시기를 식민시기를 포함한 19세기 이전과 19세기 이후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한다. 이어서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론의 분석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II. 예비적 고찰: 반 군사 전통의 개념과 형성원인

1. 반 군사 전통의 개념

20세기 이전 미국 내에 형성되어 있던 ‘반(反) 군사 전통’은 일차적으로 연방정부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는 전문 직업군인인 ‘정규군(Regulars)’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고도로 효율적인 군대로 양성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지역적으로 관리되고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시민의 군대, 즉 민병대(militia)⁵⁾ 체제에 대한 선호를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5) ‘Militia’에 대한 국내의 역어로는 ‘민병대’, ‘시민군’, ‘국민군’ 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중 ‘국민군’은 프랑스 혁명 후 소집되어 스스로를 국가와 동일시하게 된 ‘국민 일반에 의한 군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므로 주의가 요청된다. 이

의 ‘반 군사 전통’은 ‘군국주의’ 또는 ‘군사주의’로 번역되는 ‘militarism’의 반대(anti-militarism)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요청된다.

‘Militarism’은 ‘외교정책의 수행을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공격적 수단을 수시로 사용하는 것’⁶⁾에서부터 ‘전쟁과 전쟁준비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는 자세와 제도’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미국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반 군사 전통이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군사화를 의미하는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군이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 보다는 군사기구가 일정 수준 이상 확장되어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반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동안 반 군사 전통의 존재가 미국민의 호전성이나 미 대륙 내에서의 팽창정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19세기 동안 미국은 미주 대륙 내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디언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시민들은 이러한 군사작전에 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반 군사 전통이 의미하는 것은 군사력의 사용 여부보다는 군사력의 ‘구성방식’ 및 평시의 ‘유지방식’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⁸⁾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며 구 유럽의 국가들과는 다른 새로

러한 민병조직이 오늘날 주방위군(National Guard)란 명칭을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한 것은 대략 1800년대부터이다. 최초로 주방위군이란 명칭을 사용한 민병대는 뉴욕주 민병대(New York State's militia)로 일종의 명예로운 부대명칭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 “National Guard”란 용어는 프랑스 혁명시기의 국민군 조직을 의미하는 프랑스 어 “Grande Nationale”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National Guard에 대한 역어는 국방부의 관례에 따라 ‘주방위군’으로 하였는데 이는 영어 자체에 나타난 것보다 ‘National Guard’의 실제 사정을 잘 드러내는 점이 있다.

6)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2007.

7) Michael Mann, “Capitalism and Militarism,” in Michael Mann, *States, War and Capitalism* (Oxford: Blackwell, 1988), p. 124.

8) 이러한 점에서 ‘반 군사 전통’은 보다 구체적으로 ‘반 육군 전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문에서 상술한 바에 대한 거부감은 주로 육군을 향한 것이었다. 이점은 육군 개혁이 사실상 좌절되었던 19세기 후반 동안 해군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확인 될 수 있다.

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새롭게 수립된 정부가 단지 식민정부를 대체하는 또 다른 ‘폭정의 기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과 질시는 일차적으로 연방 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유지되는 정규군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정규군을 최소화하고 이를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남겨 놓으려는 시도는 연방 헌법 수립과정의 연방, 반연방 파 사이의 논쟁이나, 건국 초기 ‘민병대 법’ 수립을 둘러싼 논쟁 과정 등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 연방 초기 연방의 군사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과 군사적 위기들로 인하여 강한 군대의 수립이 요구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미국은 일차적으로 각 주 소속의 민병대를 동원하거나 새로이 지원군을 모집, 동원하고 위기가 해소되면 곧바로 해산하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이후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예컨대 독립전쟁 종결 후 대륙회의는 정규군을 80명의 관리수비병력으로 감축하고 서부전선의 수비를 위해서만 7백 명의 시민군(militia)을 편성하도록 각 주에 요청했다. 동원된 총 병력이 52만 명 수준에 이르렀던 1812년 대영전쟁 후에도 군의 규모는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1825년 의회는 군대를 최대 1만 명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남북전쟁이 종결되었던 1865년 봄 연방군(Union Army)은 최대 120만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회는 1866년 7월 5만 4천명, 1869년에는 3만 7천명, 1876년 2만 7천 명으로의 감축을 단행했다.⁹⁾ 1898년 ‘미서 전쟁(Spanish-American War)’ 직전까지 미국의 정규군 규모는 세계 14위였던 불가리아 보다 못한 수준이었다.¹⁰⁾

9) Center of Military History, *History of Military Mob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rmy, 1775-1945* (CMH 104-10, 1984),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역, 『미 육군 군사동원의 역사』, pp. 33, 77, 181.

10) Allan Millett and Peter Maslovski, *For the Common Defense: A Mili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The Free Press, 1994), p. 319.

2. 반 군사 전통 형성의 근본적 원인

20세기 이전 미국의 반 군사 전통은 ‘미국 예외주의’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 유럽을 중심 한 근대국가의 건설과정이 근대적 군사조직 및 동원 체제의 수립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에서의 근대국가 건설은 반복되는 지상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대국가는 근대식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적합한 정치조직으로서 부상한 것으로 근대 국가의 핵심인 조세제도와 관료조직은 군대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것에 다름 아니다.¹¹⁾ 따라서 유럽 근대국가의 발전은 육군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었다. 근대국가는 기본적으로 ‘군사국가’인 것이다.¹²⁾

따라서 미국의 반 군사 전통 즉, 대규모 정규군에 대한 혐오와 지역적, 자발적 민병조직(militia)에 대한 의존은 근대국가의 일반적 특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 이전 미국에서 이러한 반 군사 전통이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래에서 상세히 기술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 전통은 식민시기 영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전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19세기 동안 유럽은 서서히 ‘전문 직업군인의 시대(Military Professionalism)’로 접어들고 영국의 민병대 전통은 퇴색되게 된다. 이와 같이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 이러한 전통이 지속, 발전된 것은 유럽과는 다른 미국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 이후 100여 년간 미국에서 반 군사 전통이 형성, 발전될 수 있었

11) 박상섭, 1996.

12) 이용희 교수는 근대국가의 3대 속성으로 ‘경제국가’, ‘군사국가’, ‘식민지 국가’를 꼽은 바 있다.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 상』 (서울: 박영사, 1962). 이 세 가지 속성은 긴밀히 연관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상섭, 1996, p. 23. 각주 12. 19세기 후반 미국이 ‘경제국가’, ‘식민지국가’, ‘군사국가’의 위용을 갖추어가는 과정은 그러한 점에서 미국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이라 할 수 있다. 스키펠(Stephen Skowronek)은 19세기까지 미국 정치의 상황을 ‘국가성의 부재(statelessness)’로 요약한 바 있다. Stephen Skowronek,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1877-19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Ch. 2. The Early American State.

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독립 당시 미국은 미주 대륙의 유일한 독립국가였으며 19세기에 유럽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둘러싼 자신들끼리의 경쟁에 몰두하는 동안 이들과 두 대양으로 분리된 채 상당한 수준의 안정과 안보를 항상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19세기말까지 계속되어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1812년 영국과의 전쟁 이후 100여 년간 미국에 있어서 ‘안보’는 ‘주어진 사실’이었고, 정책 형성의 ‘목표’가 아닌 ‘출발점’이었다고 말하고 있다.¹³⁾ 자이스(Barrie Zais)는 미국은 20세기 이전, 특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과의 동맹이나 국제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절을 보냈으며 이 시기 동안 국내정치적 주요 논쟁을 결정지었던 요소는 국제적 요소가 아닌 국내정치적 고려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말한다.¹⁴⁾ 즉 근대국가가 군사국가로서 발전하도록 했던 끊임없는 ‘지정학적 경쟁(geographical competition)의 압력’이 19세기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사학계의 일반적 설명은 미국 헌법에 드러나는 전통적인 정치사상을 그 근거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헌팅턴은 기존 사학자들의 연구업적을 비판하며 ‘그들은(미국사 연구자들은) 지리상의 이점을 헌법에다 귀속시켜 왔다’고 주장한다.¹⁵⁾ 즉 미국의 고립

13)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5), p. 194. 역사학자 우드워드(C. Van. Woodward)는 이 시기를 ‘안보가 무상으로 주어진 시기(free security)’라 칭하고 있다. Richard H. Miller, “Introduction,” Richard H. Miller ed. *American Imperialism in 1898: The Quest for National Fulfillmen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0), p. 5.에서 재인용.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국제체제에서 미국의 예외적 행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다.

14) Barrie Emert Zais, *The Struggle for A 20th Century Army: Investigation and Reform of the United States Army After the Spanish-American War, 1898-1903*.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81, p. 2.

15) Huntington, 1985, p. 190.

주의 전통이 헌법상의 원리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 다수의 사고이나 사실상 그러한 원리가 수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실제적 배경은 미국이 누리고 있던 지리상의 이점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통은 1812년 영국과의 전쟁 후 유럽 강대국들이 자신들끼리의 경쟁에 몰두하는 19세기 동안 더욱 고착, 심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반 군사 전통은 단순한 조직과 제도의 수준을 넘어 기본적인 정치, 사회사상의 일부로 발전하였고, 소위 미국 국가 ‘정체성’¹⁶⁾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시기별로 그 정도는 다르지만 19세기를 넘어 20세기 초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Ⅲ. 19세기 이전 반 군사 전통의 형성 및 전개 과정

1. 반 군사 전통의 기원

미국의 ‘시민 민병대’ 전통과 군사체계의 원형은 기본적으로 18세기 이전 영국의 ‘민병 등록제(enrolled militia)’를 기원으로 한다. 13세기경 중세 영국에서는 왕과 제후의 정규군을 보좌하여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갖춘 남성 자유민은 평상시에 최소한의 군사훈련을 받아 두었다가, 위기가 도래하면 전선에 파견되도록 일정한 장부를 유지, 관리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¹⁷⁾

영국에는 노르만 정복 이전부터 자유 농민 부족 군인 ‘퓨르드(Fyrd)’의

16)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인식의 총체로서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비물질적 차원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목 받고 있다.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ombia Univ. Press, 1996), p. 62.

17) Michael Powicke, *Military Obligation in Medieval England, A Study of Liberty & Duty*,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2).

전통이 존재해 왔는데, 이러한 자발적 민병대 전통은 1181년 국왕 헨리 2세의 ‘Assize of Arms’ 선언, 1285년 ‘윈체스터 법(The Statute of Winchester)’의 제정, 1572년 ‘The Instruction for General Muster’ 발령 등으로 체계화되었고, 엘리자베스 영국 시기에 이르러 상당 수준의 정비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식민시기 미국의 지역기반 민병 조직은 이와 같은 관행이 17세기 영국출신 정착민들에 의해 미주 대륙으로 옮겨진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정규병력을 비 숙련 예비병력으로 보완하는 제도와 관행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거니와 중세 이전 로마제국 시대에도 발전된 바 있다.¹⁸⁾ 기원 후 4세기경 로마제국은 제국의 방대한 국경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규군(Comitatus)과 함께 지역별 민병조직인 ‘국경수비군(Limitanei)’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유사시 전장에 파견되어 정규군을 보충하기도 했지만 평시 치안 유지활동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 민병대 전통은 정치 사상적 차원에서 시민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미국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에 부합했을 뿐 아니라 식민 초기 인디언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광활한 영토에 대해 각 주 정부가 충분한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했던 미국의 사정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미국 민병대의 역사는 흔히 ‘시민의 총기 소지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각자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미국 초기의 상황과 연관되기 때문이다.¹⁹⁾

18) Louis A. Zurcher and Gwyn Harris-Jenkins, eds, *Supplementary Military Forces-Reserves, Militias, Auxiliaries*,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 1978). 시민 군대(citizen soldier)에 의한 자율적 방위라는 관념은 보다 멀게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로마 공화정 기의 키케로(Cicero)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 정치현실주의의 창안자인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도 군사 형태로서 시민군을 지지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사사상에 대해서는 박상섭, 『국가와 폭력: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제12장 마키아벨리의 군사사상을 참고할 것.

19) James B. Whisker, *The Rise and Decline of the American Militia System*, (London: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1999).

2. 식민시기

식민시기 동안 동부 13주의 영국 식민지는 전통을 존중하는 영국의 관례에 따라 영국법과 관습에 기초를 두고 군사동원에 대한 이론 및 법률을 마련하였는데²⁰⁾ 그러한 점에서 상비군에 대한 반감도 같은 시기 영국에 형성되어 있던 시민전쟁 이후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장미전쟁 이후 봉건 영주들의 군대가 몰락함에 따라 시민군이 유일한 군사력으로 남아 있었고, 영국을 둘러싼 바다의 이점과 효율적인 해군의 존재로 시민군만에 의한 방위가 지속될 수 있었다. 더불어 17세기에 발생한 시민전쟁과 ‘크롬웰(Cromwell) 시대’의 경험은 상비군에 대한 혐오와 시민 민병대에 대한 선호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영국에서의 상황은 미국 식민지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 초기의 열악한 경제사정도 이와 같은 관행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²¹⁾ 17세기 식민지의 경제 상황은 전쟁 수행 및 전쟁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일단의 신체 건강한 성인 집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력과 경제 상황이 비교적 좋았던 퀘이커 펜실베이니아(Quaker Pennsylvania)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지역 방위는 기본적으로 영국식 민병대 전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²²⁾

영국법과 관습에 따라, 또 스스로와 자신이 속한 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자발적 민병조직은 초기에 일정한 조직적 발전을 이루기도 한다. 각 식민 주들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모든 남성들의 소집

20)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5. 그러나 미국의 민병대 체제가 영국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 민병대와 영국 민병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하의 본문 참고.

21) 민병대는 언제나 상비군에 대해 경제적으로 저렴한 대안이었다. 예컨대 영국의 튜더가(Tudors)가 민병대 체제를 도입한 것은 방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Whisker, 1999, p. 382.

22) Russell F. Weigle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7), pp. 4-5.

명부를 유지하고 의무의 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은 600여 개가 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었다.²³⁾ 1643년 마사추세츠 베이 식민주(Massachusetts Bay Colony)는 민병대의 조직을 개편하여 각 민병 대대(company)에서 30명의 지원병(Volunteers)들이 자신의 순번인 경우 소집 명령에 30분 이내에 응소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었다.²⁴⁾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훈련일수와 면제규정 등이 점차 모호해졌고 훈련의 기강도 해이해져 훈련 기간 동안 군사훈련이나 기동연습을 하지 않고 소일하는 관행이 식민 주 전역에 만연하게 되었다.²⁵⁾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정규군에 대한 반감은 식민 지배하의 정치적 경험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미주 대륙 내 영국 식민지의 모든 군사 관련 사항은 대영제국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주로 영국에 충성스런 주지사들이 그들이 임명한 사령관과 함께 전쟁의 준비와 수행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식민지 의회는 군사와 관련된 자금, 물자, 인력에 대한 협의 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군대는 항상 대영제국의 세금 수취를 위한 착취적 도구로 인식되었다.²⁶⁾ 특히 ‘프렌치-인디언 전쟁(the French Indian War)’ 시 영국에서 파견되어 전쟁이 끝난 후 잔존했던 영국 정규군 부대는 식민지인들에게 세금착취를 위한 도구로 널리 인식되어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반감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3)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7.

24) 이는 소위 ‘간급 소집병(Minute Men)’제도로써 대부분의 주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조직화된 민병대의 시초로서 독립 전쟁 시 식민지 군대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Richard B. Crossland and James T. Currie, *Twice the Citize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Reserve, 1908-1983*,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Army Reserve, 1984), p. 2.

25) 버지니아 시민군 중대의 ‘프러시아 연습’이라 불리는 훈련을 보고 놀란 목격자는 그 훈련을 ‘단순한 희극’과 같은 연극이라 표현했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11. 식민지 의회는 군사작전에 대한 영국의 요구를 번번히 거부했고 이와 같이 시민군의 효율성 저하와 식민회의의 반대가 결국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이 대규모의 정규군을 파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6)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3.

3. 독립혁명기

이와 같이 훈련된 정규 병력에 대한 혐오는 독립전쟁 시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의 군사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여 년 전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버지니아 주의 민병대를 지휘했던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민병대의 군사적 취약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²⁷⁾ 이에 따라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대륙회의에 정규병력 양성을 위한 인력의 충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륙회의는 워싱턴의 일련의 제안들에 대해 거부로 일관한다. 이는 당시 대륙회의가 여전히 크롬웰(Oliver Cromwell)식의 군사독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⁸⁾

독립전쟁의 지도부는 대체로 전통적인 민병대 체제를 선호했다.²⁹⁾ 이는 그들이 독립의 명분으로 내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식민지를 착취하는 영국 정규군의 존재였기 때문에, 대륙회의가 영국과 동일한 군사체제를 수용할 경우 독립의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게 될 뿐 아니라, 독립전쟁이란 영국의 군대를 식민지 군대로 대체하는 일일 뿐이라는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정규군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이미 워싱턴 휘하에 초기 모집된 2,000 여 병사에 대해 단지 몇 개월 동안 보급을 유지하는 것에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수년 간 몇 만에 이르는 군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³⁰⁾ 워싱턴과 그 휘하의 장군

27) 워싱턴은 대륙회의에 보낸 서신에서 민병대는 결코 정규병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기강을 갖출 수 없다고 적고 있다. Robert K Wright, Jr., *Army Lineage Series, The Continental Army* (Washington: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3), p. 156.

28) Weigley, 1967, p.30.

29) 1776년 시작된 미국 독립전쟁의 가장 기본적 정서는 정규군에 대한 혐오와 시민군으로 구성된 민병대에 대한 선호였다. Samuel J. Newland, “The National Guard: State versus National Control,”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9, No. 1. (Jan-Feb, 1989), p. 69.

30)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17.

들은 병사들에게 제때 식량, 피복, 장비들을 공급하지 못하는 식민 주들의 무능으로 인해 수많은 탈영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대륙회의는 각 주에 의해 모집된 자발적인 ‘시민 민병대(citizen militia)’와 단기간 모병되는 지원군(Volunteer)으로 구성된 ‘대륙군(Continental Army)’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³¹⁾ 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룩한 최종적 승리는 이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항구적인 군사 전통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독립전쟁에서의 승리는 유럽식의 정식 훈련을 받은 영국의 정규군을 훈련되지는 않았지만 애국심과 열정이 넘치는 시민군이 격퇴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³²⁾

1783년 독립전쟁을 종결 짓는 ‘파리 조약(the Treaty of Paris)’이 체결된 후 ‘평시 군사 체제(The question of the peacetime Army)’에 관한 문제는 연방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떠오른다. 처음 대륙회의는 군대를 거의 완전히 해산했다. 워싱턴의 군대는 사실상 모두 각주 민병대와 단기 지원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종료는 곧 동원의 해제, 즉 군대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784년 6월 2일 대륙회의는 동원 해제 후 정규군을 John Doughty 대위 휘하의 80여 명의 사병과 약간의 장교들로 제한했다. 이와 같은 해산개념에 따른 첫 번째 동원해제는 향후 2차 대전 이전까지의 모든 동원해제에 있어서 전례와 예시가 되었다.³³⁾

31) 1775년 당시 영국에 대한 반감의 고조 속에서 보스턴에서 영국군을 포위공격하고 있던 식민지 시민군의 수는 14,500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열정은 75년 말까지 계속되어 워싱턴은 보스턴 주변에 거의 19,000명에 이르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전투에 뛰어들어 1775년 2년 간의 복무기간으로 모병을 시작했을 때 966명의 병력만이 모집되었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p. 16-18.

32) 독립전쟁에서의 승리는 훈련된 영국 정규군에 대한 시민군의 승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Huntington, 1985, p.195.

33)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33.

4. 건국 초기

영국군의 철수 후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북서쪽 인디언들에 대한 자체 방위를 위해 대륙회의가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주 등에서 700명의 시민군을 1년 간 소집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을 때 이마저도 각 주들의 반대에 부딪쳐 즉각적인 부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³⁴⁾ 대륙회의는 결국 소집된 인력만으로 초기 병력을 구성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추가 소집을 시도했다. 그러나 병력은 늘 부족한 수준이었다.³⁵⁾

연방의 군사적 취약성은 ‘쉐이즈 반란(Shays Rebellion)’ 사건을 계기로 더 명백해졌다.³⁶⁾ 1788년 독립전쟁에서 귀환 한 전직 장교 쉐이즈(Daniel Shays)는 메사추세츠 주의 2,000여 농민 채무자들을 규합하여 연방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스프링필드(Springfield)의 연방무기고 탈취를 시도하게 된다. 문제는 연방이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의 소집과 파견을 결의했을 때 메사추세츠 주 정부가 이를 저지하고, 스스로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연방 창고(Federal Store)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연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하의 연방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고 ‘연방헌법(US Constitution)’ 제정을 위한 ‘헌법 제정 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가 개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연방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속에 개최된 ‘헌법 제정 회의’에서는 신생국의 군사체제를 둘러싼 연방파와 반연방파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상비군에 대한 전통적인 반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주 기반의 시민

34) 코네티컷과 뉴욕 주가 연방의 요구를 무시했다. Don Higginbotham, *The War of American Independence: Military Attitudes, Policies and Practice 1763-1789*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1), p. 445.

35) 예컨대 1796년 파리조약에 따라 영국이 최종적으로 군대를 철수시켰을 때 작은 규모의 연방 군대는 요새들을 인수받을 능력이 없을 정도였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35.

36) Newland, 1989, p. 69.

민병대에 대한 선호가 강했지만 영국과 인디언의 위협이 상존하여 연방 중심의 강력한 군사력 건설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연방파인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연방직속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군사체제의 건설을 요구하는 계획을 제시했다.³⁷⁾

그러나 연방파의 주장은 반연방파 인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 연방의 형성과정에서 각주의 권익을 수호하고자 했던 반연방파들은 연방 상비군과 연방에 의해 통제되는 시민 민병대는 폭정(tyranny)의 도구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에 대해 형성되어 있던 위원들의 정서에 호소했다. ‘국가 방위는 기본적으로 각 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보편성에 호소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³⁸⁾

헌법 제정 회의에서 군사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해밀턴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는 총사령관 워싱턴의 견해를 중심으로 여러 견해들을 검토해 나갔다. 워싱턴은 상반되는 양 주장의 타협 점으로서 각 주 기반의 민병대 체제를 유지하되 연방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싱턴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과 ‘독립전쟁’의 경험으로 훈련되지 못한 시민 민병대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 연방의 현실과 미국민의 정서상 일정 규모 이상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37) James B. Scott, ed. *The Militia: Extracts from the Journals and Debates of the Federal Convention*,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7), p. 36.

36. 독립전쟁 시 직접 군대를 지휘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했다. 전 대륙군 장교이자 헌법 제정 회의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이었던 핑크니(Charles Cotesworth Pinckney)는 민병대의 장비와 훈련이 각 주 별로 모두 달라 독립전쟁 중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었다고 토로했다. Marvin R. Zahniser, *Charles Cotesworth Pinckney: Founding Fathe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67), p. 94. 매디슨(James Madison)은 헌법 제정 회의에서 민병대의 훈련과 기강은 명백히 국가 전체의 관심사이며 반드시 헌법 상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cott, 1917, p. 36.

38) 이와 같은 주장은 헌법 제정 회의에서 남부 케롤라이나 주 출신의 버틀러(Pierce Butler)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Higginbotham, 1971, p. 455.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워싱턴은 각 주에 의해 수립, 유지되거나 연방 통제하에 훈련되고 관리되며 연방의 방위를 위해 복무하는 ‘국가 민병대 체제(a national militia)’를 구상했던 것이다.³⁹⁾

워싱턴이 구상한 ‘국가 민병대’는 우선 거의 보편적인 것에 가까운 병역의무 개념을 기초로 18세에서 50세의 모든 남성 시민에게 각 주 민병대의 일원으로 활동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들은 또 연간 12에서 25일 동안 연방의 규율 하에 분대(squad), 중대(company), 대대(battalion), 여단(brigade) 급 훈련을 소화해야 했고 연방의 요구에 연중 항상 응소할 태세를 갖추어야 했다.⁴⁰⁾

이와 같은 워싱턴의 견해는 해밀턴 등 극단적인 연방주의자의 입장과 비교할 때 비교적 연방의 현실과 미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타협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주 권리 주창자(states’ right advocate)들은 연방의 요구에 항상 응소해야 하는 민병대 개념에 극렬한 반대로 일관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이 수렴되지 못한 가운데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연방 헌법의 군사조항이 제정되게 된다.

연방헌법은 대규모의 정규군을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민 민병대의 운영에 대해 그 사용 목적을 ‘미합중국 법의 집행, 반란의 진압, 외적의 침입 격퇴’ 등 세 가지 사항으로 제한했다.⁴¹⁾ 이는 연방 군사력의 심각한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병대

39) 미 연방의 군사체제에 대한 워싱턴의 구상은 그의 군사문제에 대한 제안서인 ‘The Sentiments on the Peace Establishment’에 잘 드러나 있다. General George Washington, “Washington’s Sentiments on the Peace Establishment,” in John McAuley Palmer, *Washington, Lincoln, Wilson* (New York: Doubleday, 1930), pp. 375-396.

40) 이는 기본적으로 ‘스위스 형 모델’을 따른 것이다. Russell F. Weigley, *Towards an American Army: Military Thought from Washington to Marshall*,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62), pp. 10-12. 스위스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시민 민병체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다. Whisker, 1999, p. 381.

41) To provide for calling forth the Militia to execute the Laws of the Union, suppress Insurrections and repel Invasions; 2011.5.23: <http://www.usconstitution.net/const.html>.

가 영토를 넘어 능동적인 군사작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우 복잡한 법리상의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각 주가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방의 파병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었다.

민병대의 조직과 무장, 훈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방의 통제하에 두되 이에 대해 의회가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교 임명권과 훈련의 구체적 실행은 각 주의 권한으로 인정하였다.⁴²⁾ 이는 상술 한 바, 상반되는 주장의 타협으로 이후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계기가 된다. 각 주의 권리와 지역적 민병조직의 우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본 규정을 활용하여 연방의 통제를 가능한 배제하거나 무력화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각 주는 연방의 소집에 응할 때 의도적으로 민병대 장교들을 정규군 장교보다 상위 계급으로 임명함으로써 정규군 장교들에 의한 민병대의 통제를 어렵게 했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민병대에 대한 연방의 통제와 관리를 규정 한 것은 처음에는 연방, 반연방 사이의 투쟁에서 연방과의 승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헌법을 시행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퇴색된다. 반연방과의 지속적인 반대에 의해 헌법의 취지를 사실 상 완전히 사상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향후 100여 년 동안 지속,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1790년 당시 전쟁성 장관이던 녹스(Henry Knox)는 대통령 워싱턴의 의지를 반영하여 연방이 제시하는 일원적인 훈련, 장비, 조직을 갖춘 민병대 양성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구상에 따라 작성된 법안은 주 권리 주창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대폭 수정된다.⁴³⁾ 수정된 법안

42) To provide for organizing, arming, and disciplining, the Militia, and for governing such Part of them as may be employ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reserving to the States respectively, the Appointment of the Officers, and the Authority of training the Militia according to the discipline prescribed by Congress; 2011.5.23: <http://www.usconstitution.net/const.html>.

은 민병대의 훈련에 대한 연방의 규제, 검열 등을 모두 없애도록 하였고, 총기나 복장과 같은 일체의 장비도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였다.⁴⁴⁾ 그 결과 민병대는 애초 연방파들이 구상했던 연방의 강력한 예비전력으로서는 아예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⁴⁵⁾

시민군 제도의 취약성이 군사적 무지나 관심 부족으로 전혀 인식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1790년 여름 오하이오 강 북부 마이애미 인디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하머(Josiah Harmar) 장군 휘하의 300여 정 규군과 1천 여 명의 시민군이 동원되었으나 이들은 두 차례의 전투에서 모두 완패했다. 이에 의회는 ‘7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위원회는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와 동원계획의 부재가 그 원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도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회 및 전쟁성 장관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⁴⁶⁾

1792년 법이 제정된 후에도 동 법의 결점과 약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예컨대 1794년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 이 법의 문제점을 조사하도록 위임 받은 가일(William B. Giles) 하원 의원은 실질적인 벌칙 조항의 신설을 통해 동 법의 집행을 보강해야 하며, 많은 규정들

43) 2011.5.27: http://www.constitution.org/mil/mil_act_1792.htm. 정확한 법령 명칭은 ‘The Militia Act of 1792, Passed May 8, 1792, providing federal standard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Militia: An ACT more effectually to provide for the National Defence, by establishing an Uniform Militia throughout the United States.’이다.

44) 동법은 시민군에 등록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그들 자신의 경비로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했으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시적 혹은 암묵적 처벌 규정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 법 제3항에서 주가 시민군을 사단, 여단, 연대, 대대, 그리고 중대단위로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 주들이 이를 지휘하도록 규정하여 사실 상 모든 권한과 권위를 주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주가 시민군에 대한 열의가 있더라도 각각 주들의 수만큼 다양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군사적으로 미숙하고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5) Newland, 1989, pp. 70-71.

46)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41. 1792년 법은 이상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여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⁴⁷⁾ 그러나 1795년 개정에서 시민군은 일단 동원되면 1년에 3개월 이상 강제로 복무할 수 없다는 독소규정이 오히려 추가되었다.

IV. 19세기 반 군사 전통의 전개 및 발전 과정

1. 19세기 전반기

미국은 강력한 정규군도, 일원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비전력도 갖추지 못한 채 19세기를 맞게 된다. 1792년 법이 통과된 후 100년 간은 이 법이 주 정부의 권한 강화를 빌미로 연방 군사력을 어떻게 약화시켰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간이었다.⁴⁸⁾ 각 주 정부는 민병대를 수립하고 훈련시킬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뜨거웠던 초기의 열정은 19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곧 사라지게 되었다. 1830년경 이미 1792년 법에 의해 규정된 민병대는 많은 주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1850년이 되면 아예 민병대를 폐지하는 주들이 적지 않게 되었다.⁴⁹⁾

1812년 전쟁 당시 연방 정규군은 7천 명 수준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연방이 뒤늦게 10만 명의 민병대를 동원하려 했을 때 메사츄세츠,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의 주지사들이 연방의 소집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동원을 거부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지휘관이 민병대 병력을 캐나다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 속출하였다.⁵⁰⁾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과 1861년의 남북전쟁의 경우도 1792년 법 하에서 각 주는 국가 정책이나 대통령의 상황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연방의

47)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43.

48) Newland, 1989, p. 71.

49) Ibid.

50) Crossland and Currie, 1984, p. 8.

동원령과 규율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연방은 더 이상 주에 의해 관리되는 민병대가 신뢰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 할 수 없게 되었다. 두 전쟁에서 동원된 병력은 평소 주의 관리하에서 훈련되던 민병대가 아니라 대부분 새로 모병된 지원군이였다.⁵¹⁾

이렇게 국방과 군사 분야가 저발전 상태로 지속되었던 근본적 원인은 상술한 바 이 기간 동안 미국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군사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정부와 의회가 평상시와 달리 즉각적인 대응으로 대처했던 사례들을 살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에덤스(John Adams)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1798년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의회는 정규군 증원, 3년간 복무할 수 있는 임시군(Provisional Army) 1만 명, 요새 구축 및 군수품 구입을 위한 경비 120만 달러를 즉시 승인해 주었다. 나아가 1799년 3월에는 정규군 규모를 4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6만 5천 규모의 임시군 모병을 인가했다. 이는 1790년대 초 군사제도를 둘러싼 연방, 반연방과 사이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실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1799년 말 프랑스 왕정이 붕괴되고 유희적인 나폴레옹이 출현함에 따라 전면 중단되어 이미 모병된 4천 여명의 군사도 익년 6월까지 해산하도록 명해진다.⁵²⁾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 시기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었다. 제퍼슨은 상비군과 직업군대를 경멸하고 시민군제를 이상적인 군사제도로 믿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⁵³⁾ 실제로 제퍼슨은 8년간의 재임기간 대

51) Newland, 1989, p. 71.

52) 결국 1799년 정규군 규모는 3492명으로 이 소수의 병력은 접경지역과 대서양 해안선을 따라 분산 배치되게 된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49.

53) 그러나 상비군에 대한 불신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공화주의 사상의 구현자 제퍼슨의 ‘상비군관’도 사실은 ‘연방파가 장악한 상비군’에 대한 불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Theodore J. Crackel, Mr. Jefferson’s Army: Political and Social Reform of the Military Establishment, 1801-1809 (New York, 1987). 권용

부분 동안 루이지애나 구입에 따른 군사적 부담의 증대, 프랑스, 스페인, 영국과의 전쟁 가능성 상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비한 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1808년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정책으로 미국 상선들이 공격을 받는 등 긴장이 고조되자 그 역시 의회에 정규군을 6천명 증강시켜 9천9백 명 수준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⁵⁴⁾

19세기의 전반기를 거치는 동안 군대에 대한 반감은 제도와 관행의 수준을 넘어 미국의 정치, 사회 사상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은 미국 정치사상의 핵심인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완전한 일부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건국은 유럽 식의 절대주의, 제국주의 국가체제⁵⁵⁾로부터의 이탈, 또는 이와외의 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정치 사상의 차원에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사회 내에서 군대의 역할과 위상은 이들 정치 사상의 핵심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식민 정착민들 사이에서 처음 시작된 자발적 민병대의 관행은 영국의 전통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무기를 소지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유민(free men)’이라는 식민지인들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식민시기 동안 민병대 조직이 활성화된 것은 영국의 군대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적인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식민지인들의 이상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식민 사회에서 민병조직의 형성과 활성화는 곧 미국 식민지 내의 공동체 의식의 성장과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⁵⁶⁾ 즉

립, 『미국 대외정책사』 (서울: 민음사, 1997), p. 21.에서 재인용.

54) 그러나 이러한 법은 영국, 프랑스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한 매디슨(James Madison) 대통령에 의해 폐지된다.

55) 당시 영국이 유럽의 특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절대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예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민지 미국에서는 영국이 공화주의의 본 궤도에서 벗어나 부패한 상태로 접어든 정치체제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다. 따라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은 공화주의의 본질인 ‘덕성(virtue)’을 회복하여 공화주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권용립, “미국 정치와 대외 정책의 이념적 토대에 관한 연구-공민주의(civic Humanism)의 미국화 과정을 중심으로,” 『통일논총』, 제4권, 제1호, 1998.

민병대 활동은 미국인들의 삶의 자연스런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상비군에 대한 혐오는 상술한 바 미국 사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독립전쟁기부터 미국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일부로 간주되었다. 예컨대 1784년 대륙회의는 영국국왕에 대한 청원서에서 “... 평화시의 상비군은 공화제 국가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일반적으로 전제정치로 가기 위한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당시 식민지 지도자 및 각 주 입법부들은 이와 유사한 성명과 포고, 각서들을 수 차례씩 발간한 바 있다.⁵⁷⁾ 평화시의 상비군이 공화제적 정부에 위협이 된다는 사고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이 주요 전쟁을 치르며 소집했던 대규모 군대를 전쟁 종결과 동시에 일시에 해산시키는 전통을 2차 대전 이전까지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⁵⁸⁾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왕위가 세습되는 군주독재에 반하여 인민주권에 의한 공동의 지배를 지향하는 정치사상으로 정의되나, 시대와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띠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유주의와 비교하여 시민의 덕성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여 민주주의가 일련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서 그 고유한 의미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8세기 후반 일련의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대중 일반과 독립전쟁의 지도부에 영향을 준 공화주의 사상은 18세기 영국 의회의 과도정 체제에 저항한 영국 사

56) Whisker, 1999, p. 386.

57) 소위 ‘상비군’이라 불리던 것에 대해 식민지 주들이 두려움과 혐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4.

58) 예컨대 동원된 총 병력이 52만 명 수준에 이르렀던 1812년 대영전쟁 후에도 군의 규모는 급격히 감소되어 1825년 의회는 군대를 최대 1만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77. 남북전쟁이 종결되었던 1865년 봄 연방군(Union Army)은 최대 120만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회는 전쟁 직후인 1866년 7월 5만 4천명, 1869년 3만 7천명, 1876년 2만 7천 명으로의 감축을 단행했다.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4, p. 181.

상가들의 공화주의 사상으로 일당 독재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한 공화주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⁵⁹⁾

공화주의 사상은 정치공동체의 사활을 ‘시민적 덕성(Virtue)’과 ‘부패(Corruption)’의 대립관계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부패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중시한다. 특히 저항적 성격이 강했던 미국의 공화주의는 군대가 군주나 귀족의 전유물이 되어 폭정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했을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각 지역이 민병대를 보유하여 물리적 폭력을 분점 하는 것이 정치공동체의 덕성을 유지하고 부패와 타락을 막는 중요한 기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상비군에 대한 거부감과 지역별 민병조직에 대한 선호는 미국의 근본적 정치사상으로서 공화주의의 중요한 일부로서 존재했던 것이다.⁶⁰⁾

또 미국 사회에 팽배한 자유주의적 사조는 군에 대한 적대적 심상의 원천으로 작용해 왔다.⁶¹⁾ 자유주의의 본질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확인이므로 자유주의 자체는 세련된 군사, 안보 사상을 담보할 수 없다. 군사, 안보 영역은 국가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자유주의의 태도는 일차적으로 적대적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발전되던 시기 조차 항상 이에 필적하는 다수의 사상이 존

59) 미국 정치사상의 근간이 된 공화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권용립, 1998을 참고할 것.

60) 공화주의의 역사적 성격은 미국 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초기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띤 미국의 공화주의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는 영토확장과 제국주의 사상의 근거로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화주의는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할 뿐 사회적 차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19세기말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 도덕적 우월주의 등과 쉽게 결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용립, 1998. 다만 이러한 공화주의의 성격 변화, 또는 강조점의 변화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국제정치적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정치사회사상의 변화라는 관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애초에 상비군의 건설에 반대하고 시민 민병대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던 공화주의가 19세기 말 새로운 필요에 직면하자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용되었거나 그 강조점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1) Huntington, 1985, p. 187.

재하여 위기 시에 자유주의를 대체함으로써 안보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사정은 달랐다.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적 정치이론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⁶²⁾ 해밀턴, 칼호운(John C. Calhoun)과 같이 군사정책 및 군의 역할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진 인물들이 면면히 존재해 왔지만 이들의 견해는 항상 미국 정치의 주류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가 이토록 번성했던 것은 상술한 바 19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국제적 고립과 함께 계속된 경제적 팽창의 결과였다. 19세기 동안 미국의 국가안보는 의식적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책적 논의의 대전제로서 항상 주어지는 분석의 출발점이었다.⁶³⁾ 따라서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해 축소되어야 할 존재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지속적인 경제적 팽창은 파이 자체의 크기를 계속 확대시켜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했고 그 결과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제기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또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경우에도 신속히 기성질서에 동화되었다. 이처럼 국내정치에서 심각한 계급투쟁이 부재한 가운데 정치에 있어서 권력의 역할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은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에 대한 자유주의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개인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유주의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고 따라서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의 전쟁에 대한 첫 번째 대응방식은 평화주의와 불개입이다. 그러

62) 미국 내의 자유주의의 보편성과 그 본질적으로 정적인 특성은 유럽 이데올로기의 다양성과 역동성과는 대조적이다. 프랑스인은 귀족주의적 보수주의, 혁명적 민주주의, 보나파르트주의, 교권주의(clericalism), 왕정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은 자유주의밖에 모른다. Huntington, 1985, p. 183.

63) 미국과 다른 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국제적 사안에 대한 적절한 행동의 진로를 제시하기 위한 사상에 대한 요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Huntington, 1985, p. 184.

나 자유주의가 항상 전쟁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전쟁을 일상적인 국가의 정책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유주의적 목적을 수행하는 이데올로기적 운동으로 정당화시킬 수는 있다. 이 경우 전쟁은 일종의 ‘성전’이 되어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정을 이끌어 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의 전쟁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군대에 대한 태도는 일관된다. 전쟁에 대해 평화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입장은 직업군부 집단을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타국과의 분쟁을 야기하고 사회 내에서 호전적 태도를 양산하는 무리로 취급한다. 전쟁을 성전화하고 십자군적 사고방식을 견지하는 입장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직업군인이란 전쟁의 궁극적 목적인 이상적 기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따라서 오히려 자신들의 십자군적 이상을 오염시키는 존재로 폄하한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관점은 전문 군부 집단을 평시에 사회 내에 유지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시민 일반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군대에 의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선호해왔던 것이다. 십자군적인 전쟁은 직업군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국민 일반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규군에 대한 혐오와 자발적 시민 민병대에 대한 선호는 미국 자유주의 사상의 중요한 일부로 면면히 발전되어 왔다.

2. 남북전쟁과 연방 재건기

서술한 바 남북전쟁 역시 대부분 급조된 지원군을 통해 치러지게 되었다. 연방의 동원 요구에 적지 않은 주들이 민병대의 동원을 거부했으며 지원군 동원을 위한 예산 배정은 의회에서 번번히 거부되었다. 남북전쟁 말기 대규모로 동원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북부군도 상술한 바 전쟁이 끝나자 빠른 속도로 해산되었다.⁶⁴⁾

64) 각주 8을 참고할 것.

남북전쟁이 끝난 후 15년 간은 미국이 남부 재건과 국가의 통일성 재고를 위해 노력했던 시기로 ‘연방 재건시대(Reconstruction)’로 불린다. 한편 이 시기는 공화당 우세의 정당체제를 배경으로⁶⁵⁾ 19세기 전반 미주 대륙 내의 영토 팽창에 국한되었던 대외정책 기조를, 1890년대 말 대륙 밖으로의 팽창과 해외 시장 확대로 전환하는, 대외정책의 일대 전환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 시기이기도 하다.

즉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대외정책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게 된다. 남북 전쟁 기간 동안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은 대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연방 헌법상의 규정들을 우회하는 수 차례의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는 이후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추인되었다.⁶⁶⁾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는 메킨리(William McKinley)와 T.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테프트(William Howard Taft)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구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⁶⁷⁾

남북전쟁 기간 동안 북부는 이전 시기 남부의 반대로 재정되지 못했던 각종 상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법령들을 재정하게 되어 전후 경제의 폭발적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 시기 동안 북부 상공업

65) 남북 전쟁 이후부터 대공황시기까지 약 60여 년 간은 ‘공화당 우세 정당체제’ 시기로 분류된다.

66) 1890년의 니글 판결(In re Neagle)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판결은 20세기 미국 외교의 추세를 예고한 것이었다.

67) 19세기말 대외정책의 선회를 주도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아닌 대통령이었다. 권용립, 1997, p. 310. 스크로벡과 자카리아도 이 시기 연방 정치제도의 변화를 미국 대외정책변동의 근본적인 동인으로 꼽고 있다. 스크로벡은 미국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근대국가로서의 국가성(stateness)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국가기구로서의 충분한 관료제를 확립하지 못하고 분권적인 파당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분석한다. Skowronek, 1982. 자카리아 역시 미국이 충분한 행정적 자립성과 사회에 대한 자원추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19세기 후반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후에도 상당 기간 국제정치적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본다. Fareed Zakaria, *From Wealth to Power*,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98).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화당이 상, 하 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공화당 우위의 정당체제가 지속되어 재계의 영향력이 외교에 반영되는데 유리한 상황이 유지되었다.⁶⁸⁾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반감은 지속되고 오히려 강화, 고조되었다. 먼저 남북전쟁의 참화로 전후 상당기간 동안 연방 전역에 염전(厭戰) 현상이 만연했다. 동원된 군대는 철저히 해산되었으며 전쟁 중 부여된 고위 계급은 대부분 강등되었다. 군은 다시 변경을 수비하는 분산되고 고립된 집단이 되어 만성적인 진급정체에 시달리는 활기 없는 소규모 집단으로 급속도로 회귀했다.⁶⁹⁾ 남부와 북부의 갈등, 일종의 점령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연방 정규군에 대한 반감도 군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반감의 한 원인이 되었다.⁷⁰⁾

전후 연방 재건기는 사회적으로 ‘산업 평화주의’가 확산된 시기였다. 연방 재건 활동에 따라 경기가 부흥되면서 상업과 산업 발전, 상호 의존이 갈등적 국제관계를 영구적으로 대체하여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군대는 시대에 뒤쳐진 구시대적 패물이거나 평화가 깨지고 자신들의 시대가 오기를 꿈꾸는 병리적 집단으로 치부되기 쉬었다.

1870년대 이후 인디언과의 전쟁도 대부분 종결되어 소강상태에 이르면

68) 1894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압승을 거둬 상하 양원 모두를 석권하게 된다. 1896년 이후 미국의 대외팽창은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 침공’으로 묘사된다, 권용립, 1997, p. 299.

69) 군 규모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장군 등 고위 계급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전쟁 중 장군으로 진급했던 많은 군인들이 소령이나 대위로 강등되었다. 1889년 당시 110명의 장교들은 20년 째 진급 하지 못한 채 복무하고 있었으며 전후 30여 년이 흐른 1895년에도 279명의 고위 장교가 여전히 남북전쟁 출신이었다. Edward Coffman, *The Old Ar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230.

70) 남북 전쟁 후 남부의 재건을 담당했던 것은 연방 정규군이였다. 이들의 이러한 역할은 훗날 미국이 필리핀, 쿠바 등 식민지에서 수행했던 사회 재건 사업의 모태가 되었다. 20세기 이후 군은 이러한 역할을 통해 미국 사회 내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서 군은 사회적 관심에서 더욱 멀어졌다. 이 시기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산업계의 노동자 분규가 증가했고 군은 이를 진압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았다. 이로서 군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내에서의 존재 위상을 확립하는 듯 했으나 이로 인해 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⁷¹⁾ 결국 미국 사회 내에서 군대는 여전히 고립되고 이질적인 집단으로서 19세기 후반을 맞게 되었다.

3. 19세기 후반기

1850년경 미국이 북미 대륙의 현 국경을 확정 지을 때까지 미국은 미주 지역 내의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y)을 차지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⁷²⁾ 미국은 유럽의 강대국들로부터 두 대양으로 절연되어 있었고 또 지역 군소 국가들의 국력이 약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치에 상대적으로 쉽게 오를 수 있었다. 이 시기 미국은 유럽 강대국들이 대양 건너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손쉬운 대륙 내의 팽창 기회를 두고, 거대 군대를 건설하여 해외로 팽창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

187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의 확장과 끝없는 인구의 유입 속에 이미 유럽 주요 강대국을 능가하는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 미국의 인구는 1851년에서 1900년까지 단 5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로부터의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인해 약 2천 3백만에서 7천6백만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850년 영국 산업 능력의 4분의 1 규모였던 미국의 경제는 1900년이 되면 영국의 1.6배로 증가해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을 압도하는 수준이 된다.

미국사에서 군 개혁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71) 이 업무에 동원된 주방위군들 역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 Steven Patrick Schroeder, *The Elementary School of the Army: The Pennsylvania National Guard, 1877-1917*,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2006, p. 3.

7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Ch. 7. The Offshore Balancer.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남북전쟁 후 1860년대 후반이라 할 수 있다.⁷³⁾ 남북전쟁으로 배출된 일군의 유능한 장교집단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 미국의 군사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전후 고조된 군대에 대한 반감 속에서도 미 육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⁷⁴⁾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장된다.⁷⁵⁾ 상술한 바 군대에 대한 반감은 19세기 후반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군 개혁 집단의 개혁에 대한 구상과 비전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미 육군은 당시 연전연승을 달리던 프러시아 육군을 모델로 삼고자 했다. 프러시아 군은 세계 육군의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휘체계와 전문성 있는 참모부의 활약 등 미 육군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것으로 인식되었다.⁷⁶⁾ 그러나 프러시아는 당시 유럽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국가로서, 그 핵심인 육군의 여러 제도와 체제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체제 및 정서에 쉽게 부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육군 개혁의 주도세력은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1876년 총사령관(commanding general) 셔먼(William T. Sherman)의 후원으로 세계 육군체제에 대한 순방에 오른 업튼(Emory Upton)⁷⁷⁾은 인

73) Donna Marie Eleanor Thomas, *Army Reform in America: The Crucial Years 1876-1881*,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1980.

74) Louis Cantor, *The Creation of the Modern National Guard: The Dick Militia Act of 1903*,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63, Ch.3; Jason Patrick Clark, *The Many Faces of Reform: Military Progressivism in the U. S. Army, 1866-1916*,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2009, p. 390.

75) William Ancel Sherrard, *The Legislative Origins of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Arm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1993.

76) 19세기 후반 미 육군 장교들은 독일과 비교하여 그들의 낙후성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었고, 독일적 방법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할 모델로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가지고 있었다. 독일의 교훈은 자주 잘못 해석되었고 잘못 적용되었다. Huntington, 1985, p. 236.

77) 업튼은 뉴욕 주 출신의 열성적인 감리교인(Methodist)으로 1856년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였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참전한 업튼은 많은 활약으로 1861년 중

도,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오토만 제국,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돌아보고 귀국하여 순방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1878년 ‘아시아와 유럽의 육군(The Armies of Asia and Europe)’이라는 제하에 출간하게 된다. 주로 프리시아 육군을 모델로 작성된 이 저서와, 필사본 형태로 존재했던 또 다른 저서 ‘미 육군의 군사정책(The Military Policy of United States)’은 개혁을 지향하는 정규군 장교단 내에서 널리 회람되며 큰 공감을 얻었다.⁷⁸⁾ 두 저서에서 업튼은 미 육군이 가진 여러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글은 당시 상황에 대한 업튼의 인식을 잘 드러낸다.⁷⁹⁾

다른 국가들의 급격한 성장 속도, 우리의 방대한 영토, 늘어나는 인구를 생각할 때 조만간 애덤스(John Adams)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국방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 관심사의 하나’라는 말이 실감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인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하지만 여전히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는 뚜렷하지 않은 사실, 즉 거대한, 심지어 작은 규모의 정규군에 대해서도 심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것, 위기 상황에 적합한 큰 규모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언젠가 국가의 부름에

위계급(1st lieutenant)에서 1865년에는 미 육군 준장(brigadier general United States Army)과 지원군 소장(major general of volunteers)으로 진급했다. 업튼은 남북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여러 전투들에 참여했으며 두 차례나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병대와 지원군이 전투 중 도망을 가거나 지원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참전을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경험했다. Stephen E. Ambrose, *Upton and the Army*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4), pp. 6-14. 남북전쟁이 끝난 후 서부 변경지역의 학칙에 보임(of cadets at West Point)이 된 업튼은 1875년에 이르러 미 육군 내에서 가장 뛰어난 업튼은 군 개혁에 관한 연구에 전념한다. 1871년 웨스트포인트의 학장(commandant 군사이론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Ambrose, 1964, p. 70.

- 78) ‘미 육군의 군사정책’은 이후 1900년대 초 육군 개혁을 주도하는 전쟁성 장관 루트(Elihu Root)에 의해 그의 서문과 함께 정식 정부서적으로 출간된다.
- 79) 업튼의 ‘미 육군의 군사 정책’은 오랫동안 사본 형태로 장교들 사이에서 회람되다가 1904년 당시 전쟁성 장관 루트에 의해 정부 간행물로 출간되었다. 루트는 본 저서를 간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서문을 쓴 바 있다.

용기 있게 나선 지원군과 민병대원들은 그들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적의 공격에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⁸⁰⁾

업튼으로 대표되는 남북전쟁 출신 장교단이 전쟁을 통해 느끼고 있었던 미 육군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육군 지휘체계의 혼란이다. 군령을 맡은 총사령관과 군정을 맡은 전쟁성 장관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확립되어있지 않아 양자 사이의 안력 다툼과 비협조가 상시적으로 발생했다.⁸¹⁾ 둘째, 참모부와 전선의 관계도 문제였다. 참모부 보직은 정해진 임기가 없어 일단 참모부에 보임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참모부는 외부에 대해 배타적인 정체된 집단이 되었고, 금전과 보급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중심으로 많은 부패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일선의 장교들은 부족한 진급기회를 기다리기보다 참모부에 보임될 기회를 갖기 위해 참모부 장교들과 연줄을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참모부가 전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참모부의 눈치를 살피는 ‘관계의 역전’이 발생하여 제대로 된 전투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성향의 장교단은 발전된 외국군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하였다.⁸²⁾ 미 육군의 전통적인 모델은 프랑스 군이었다.⁸³⁾ 그러나 프러시아가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자 미군 장교단 사이에서도 프러시아군사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⁸⁴⁾ 특히 프러시아의 방대하고 정교한 동원계획과 효율적이고 일

80) Emory Upton, *The Military Policy of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PD, 1912), pp. 13-14.

81) 이는 전쟁 말기 대통령 링컨이 그랜트 장군에게 전권을 위임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곧바로 과거로 회귀한다.

82) Peter Daniel Skirbunt, *Prologue to Reform: The Germ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1865-1898*,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3, p. 3.

83) 조미니(A. H. Jomini)의 전략 및 전술 개념이 미 육군 교범에 널리 활용되었다. Robert F. Stohlman, *The Powerless Position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Army 1864-1903* (Manhattan KS: Kansas State University, 1975), p. 52.

원적인 명령체계,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총참모부 체제(general staff system)’⁸⁵⁾는 새롭게 떠오르는 군사적 표준일 뿐 아니라 미 육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인식되었다.

본래 프리시아의 ‘총참모부’도 전쟁성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참모총장은 전쟁성 장관의 지휘하에 있으면서 그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총참모부의 위상은 계속 강화되었고,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동안 왕이 전 군에 대한 지휘권을 참모총장 몰트케(Helmuth von Moltke)에게 일임하면서 정치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된다.⁸⁶⁾ 이후 일련의 전쟁에서 프리시아 군의 신속한 승리가 계속되자 ‘위험한 선례’는 하나의 확립된 원칙으로 변했다. 결국 프리시아군사체제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금언을 위배하게 되었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강고한 보루가 되었다.

19세기 후반 미 육군의 개혁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1870년 유럽을 방문 중이던 셰리던(Philip Sheridan)은 프랑스에 대한 프리시아의 신속한 승리에 깊은 감명을 받고 미국 역시 프리시아와 같은 전쟁 계획 기구(war planning agency)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전쟁 기간 동안 치열하게 벌여졌던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와 몰트케의 싸움과 그 의미는 전혀 인식

84) 1860년대 이후 프리시아 독일의 연전연승으로 오랫동안 이어졌던 미군의 프랑스 군에 대한 동경은 종료되었다. Skirbunt, 1983, p. 3.

85) ‘general staff’의 역어로는 ‘총참모부’와 함께 주로 ‘장군참모’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general staff’에서 ‘general’의 의미는 원어인 독일어를 기준으로 할 때 ‘장군’이 아닌 ‘일반적인’의 의미이다. 이는 다양한 참모부서를 총괄한다는 ‘general staff’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총참모부’를 사용한다. 한편 독일의 ‘general staff’을 기원으로 하는 오늘날의 지휘부에 대한 공식적인 군사 용어는 ‘참모본부’다.

86) 이 포고령에 의해 참모총장은 전쟁성 장관과, 심지어 왕에게도 미리 보고할 필요가 없어졌다. T. N. Dupuy, *A Genius for War: The German Army and the General Staff 1807-1945*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7), p. 79.

하지 못하고 있었다.⁸⁷⁾

이러한 사정은 대부분의 개혁인사들 사이에 공통된 것이었다. 남북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대통령 링컨(Abraham Lincoln)은 총사령관 그랜트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된다.⁸⁸⁾ 이러한 전례와 프리시아 시스템을 기초로 미 육군의 개혁을 구상했던 대부분의 장교들은 프리시아 군부에 주어졌던 ‘절대적인 수준의 자율성’이 미국의 정치체제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⁸⁹⁾

1868년 그랜트(Ulysses S. Grant)가 대통령이 되면서 총사령관직을 맡게 된 셔먼은 그랜트의 후원 하에 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셔먼과 그랜트는 먼저 분열된 군 지휘권을 일원화하기 위해 전쟁성 장관과 참모부서들이 모두 총사령관(Commanding General)을 통해서 명령을 발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했다.⁹⁰⁾ 그러나 이 개혁안은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서조차 공격을 받는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권이 군인의 통제 하에 주어진다는 관념은 여전히 결코 받아들여 질 수 없었고 그 결과 군의 분열된 지휘체계는 지속하였다.⁹¹⁾

19세기 후반 육군 개혁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⁹²⁾ 그러나 19세기 후반 육군 개혁은 개혁의 주도자들이 제기했던

87) Coffman, 1986, pp. 272-273.

88) 링컨은 총사령관 맥클랜(George McClellan) 장군과 전쟁성 장관 스톤튼(Edwin Staunton), 카메론(Simon Cameron)과의 관계 악화로 지휘계통의 혼란이 초래되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전쟁이 종결됨과 동시에 전쟁성 장관에게로 다시 이관되었고 그 결과 총사령관과 전쟁성 장관 사이의 마찰도 다시 시작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군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에 대한 통제권을 맡긴다는 관념이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없었다.

89) Ronald J. Barr, *Neo-Hamiltonian Republican And Military Reform in the Progressive Era: 1898-1912*, Louisiana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3. p. 26.

90) Stohlman, 1975, pp. 30-36.

91) Richard Allen Andrews, *Years of Frustration: William T Sherman, and Reform 1869-1883*,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1968, pp. 39-40; Thomas, 1980, p. 3.

92) 대표적인 성과는 기술학교 교육제도의 발전 등 군 교육체제의 양적, 질적 향상, 군사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는 점과,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은 고립된 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남북전쟁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장교들은 개혁에 무관심 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1880년대와 90년대 일정한 성과를 거둔 해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⁹³⁾ 그리고 그 차이는 1898년 미서 전쟁(Spanish American War)의 발발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V. 결론

미서 전쟁은 건국 이후 축적되어 온 미 육군의 모순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전쟁 직전인 1898년 미국의 병력 규모는 2만 5천 수준으로 당시 인구 7천 2백만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어느 주요국가보다 인구 대비 군사력이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⁹⁴⁾ 전쟁 개시로 동원된 인력은 대부분 수준 미달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가까스로 쿠바와 필리핀 등 전장에 도착한 병력들은 굶주림과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다. 전쟁은 주로 스페인 측의 열악함과 해군의 활약으로 짧은 기간 내에 승리로 마무리 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전쟁 중 보도된 참상과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증언으로 정규

협회의 결성과 협회지 발간 등 군 내부 집단의 결집 도모, 개혁 성향의 젊은 장교단 양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헌팅턴은 이 시기를 미국사에서 군 전문직주의가 형성된 시기로 보기도 한다. Huntington. 1985. Ch.9.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Military Profession.

93) 이러한 점에서 20세기 이전 미국의 반 군사 전통은 보다 엄밀하게 ‘반 육군 전통’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전까지 미국에 있어서 육군과 해군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해군에 대한 반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군 개혁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94) William Addleman Ganoe, *A History of the U.S. Army* (New York: D. Appleton Co, 1942), p. 220.

군과 동원체제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899년 새롭게 기용된 전쟁성 장관 루트의 활약으로 본격적인 육군 개혁이 시작된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기존 군사체제와 군 개혁에 반대하는 정서는 단기간 내에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군사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낙후된 기존 시스템은 미국의 근본적 정치원리와 전통을 구현하는 제도적 기제로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모두 전통적 신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일관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다.

기존 체제에 안주하며 개혁에 반대했던 세력들은 이념적 공통분모를 공유한 채 개혁의 반대를 위해 쉽게 연합했고 전통적인 정서와 사고방식, 정치적 신념에 호소하는 것을 통해 의회 안팎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은 오직 전통과의 적극적인 조화와 반대 세력과의 지속적인 타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개혁의 성과는 많은 점에서 제약되었으며 완강한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단 이루어진 개혁도 쉽게 지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일이 잦았다.

1914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 개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반 군사 전통에 입각한 개혁 반대와 전쟁 준비태세(war preparedness) 강화를 주장하는 측 사이의 치열한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전쟁 불개입을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윌슨(Woodrow Wilson)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 최초의 광범위한 국방관련 입법인 ‘1916년 국가방위법(National Defense Act of 1916)’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19세기 후반 이후 군 개혁론자들이 주장해 온 개혁 사상의 대부분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서 전쟁이 끝난 1899년부터 1916년 사이에 이루어진 미 육군의 개혁은 현재까지 미 육군 및 군사 동원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미국 군사 전통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수행해 온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외견상 미국의

군사 전통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전 형성된 미국의 군사 전통, 즉 ‘반 군사 전통’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던 2005년 당시 이라크 지역에 파견된 미 육군의 절반 가량은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었다.⁹⁵⁾ 이와 같은 주방위군의 동원은 1, 2차 세계 대전뿐 아니라 한국 전쟁, 베를린 위기,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미군의 주요 해외 파병 사례에서 공히 관찰되는 것이다.⁹⁶⁾

한편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에 대한 각 주와 연방의 대립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2005년 당시 플로리다 등 남동부의 주들은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자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각 주 소속 주방위군들을 소환해 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대립은 역사적으로 육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미국의 능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미국의 힘이 쇠락할 때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95) 국방일보 2005. 9. 26. 주방위군은 19세기 후반 지역별 민병대를 부르는 새로운 명칭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6을 참고할 것.

96) Newland, 1989, pp. 68-73. 2차 대전 이후 징병제를 실시해 온 미국은 베트남 전 이후 1975년부터 다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에 기초한 소위 ‘전 군 동원 정책(Total Force Policy)’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 군 동원 정책’은 연방군을 연방정규군과 함께 각 주 소속의 주방위군, 연방 예비군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1903년 주방위군 법’과 ‘1912년 예비군 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Works Cited

- 권용립. 『미국 대외정책사』 (서울: 민음사, 1997).
- 권용립. “미국 정치와 대외 정책의 이념적 토대에 관한 연구—공민주의(civic Humanism)의 미국화 과정을 중심으로.” 『통일논총』, 제4권, 제1호
- 박상섭. 『국가와 폭력: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1996).
-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 상』 (서울: 박영사, 1962).
- Center of Military History. *History of Military Mob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rmy, 1775-1945* (CMH 104-10, 1984),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역, 『미 육군 군사동원의 역사』.
- Ambrose, Stephen E. *Upton and the Army*.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64.
- Andrews, Richard Allen. *Years of Frustration: William T Sherman, and Reform 1869-1883*,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1968.
- Barr, Ronald J. *Neo-Hamiltonian Republican And Military Reform in the Progressive Era: 1898-1912*, Louisiana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3.
- Cantor, Louis. *The Creation of the Modern National Guard: The Dick Militia Act of 1903*,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63.
- Clark, Jason Patrick. *The Many Faces of Reform: Military Progressivism in the U. S. Army, 1866-1916*,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2009.
- Coffman, Edward. *The Old Ar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Crackel, Theodore J. *Mr. Jefferson's Army: Political and Social Reform of the Military Establishment, 1801-1809*. New York, 1987.
- Crossland, Richard B. and Currie, James T. *Twice the Citize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Reserve, 1908-1983*. Washinton, DC: Office of the Chief Army Reserve, 1984.
- Dupuy, T. N. *A Genius for War: The German Army and the General Staff 1807-1945*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7.
- Ganoe, William Addleman, *A History of the U.S. Army*. New York: D. Appleton Co, 1942.

- Higginbotham, Don. *The War of American Independence: Military Attitudes, Policies and Practice 1763-1789*.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1.
- Huntington, Sameul P.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5.
- Jepperson Ronald L., Wendt, Alexander, and Katzenstein, Peter J.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ombia Univ. Press, 1996.
- Mann, Michael. "Capitalism and Militarism," in Michael Mann, *States, War and Capitalism*. Oxford: Blackwell, 1988.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 Miller, Richard H. "Introduction," Richard H. Miller ed. *American Imperialism in 1898: The Quest for National Fulfillmen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0.
- Newland, Samuel J. "The National Guard: State versus National Control,"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9, No. 1. Jan-Feb, 1989.
- Powicke, Michael. *Military Obligation in Medieval England, A Study of Liberty & Duty*,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2.
- Scott, James B. ed. *The Militia: Extracts from the Journals and Debates of the Federal Convention*.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7.
- Schroeder, Steven Patrick. *The Elementary School of the Army: The Pennsylvania National Guard, 1877-1917*,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2006.
- Sherrard, William Ancel. *The Legislative Origins of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Arm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1993.
- Skirbunt, Peter Daniel. *Prologue to Reform: The Germaniz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1865-1898*,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3.
- Skowronek, Stephen.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The Expans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Capacities, 1877-19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Stohlman, Robert F. *The Powerless Position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 Army 1864-1903*. Manhattan KS: Kansas State University, 1975.
- Thomas, Donna Marie Eleanor. *Army Reform in America: The Crucial Years 1876-1881*,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1980.
- Upton, Emory. *The Military Policy of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PD, 1912.
- Washington, George. "Washington's Sentiments on the Peace Establishment," in John McAuley Palmer, *Washington, Lincoln, Wilson*. New York: Doubleday, 1930.
- Weigley, Russell F.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7.
- Whisker, James B. *The Rise and Decline of the American Militia System*. London: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1999.
- Weigley, Russell F. *Towards an American Army: Military Thought from Washington to Marshall*.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62.
- Wright, Jr. Robert K. *Army Lineage Series, The Continental Army*. Washington: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3
- Zahniser, Marvin R. *Charles Cotesworth Pinckney: Founding Fathe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67.
- Zais, Barrie Emert. *The Struggle for A 20th Century Army: Investigation and Reform of the United States Army After the Spanish-American War, 1898-1903*. Ph. 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81.
- Zakaria, Fareed. *From Wealth to Power*.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98.
- Zurcher Louis A. and Harris-Jenkis, Gwyn. eds, *Supplementary Military Forces-Reserves, Militias, Auxiliaries*.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 1978.

- 논문 투고일자: 2012. 4. 5
- 심사(수정)일자: 2012. 4. 18
- 게재 확정일자: 2012. 5. 15

Abstract

**Military Tradition of United States Before 20th Century:
Forming and Development of Anti-Military Tradition**

Inhyo Seol

(Yonsei University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Studies BK21)

United States had had unique tradition of supporting local volunteer militia and avoiding large scale standing army, ‘the Anti-Military Tradition,’ since colonial time to the early 20th century. United States had enjoyed relatively much security for more than 100 years after its independence because the country is blocked by the two great oceans from major European powers and during the most part of 19th century European countries were focused on severe competitions among them under balance of power cond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United States had developed a series of traditions to abhor the building of the sizable regular army, and nation-wide military mobilization system, which doesn’t correspond to one of the basic rules of modern international system, ‘struggle for power.’ The tradition originated in the colonial period and had developed through 19th century and finally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major part of the national political philosophies and identity.

After the Civil War, United States created the foundation for political integration, and experienced record increase of economic power, and population during the second half of 1800s and finally during the first 16 years of 20th century United States military and mobilization system was changed into much developed modern one after a series of reform efforts. However, ‘the Anti- Military Tradition’ has its own vitality with certain fixed conditions of the country and has influenced American society and political and defense policies.

Key Words

United States Army, Anti-military tradition, American military tradition, military tradition of 19th century America, National Guard